

# 한국 추상미술 전시의 역사

## 1957-2015

김달진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추상미술이란 개념은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한 구상미술의 반대 개념인 비구상미술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최초의 추상화로 주경의 1923년 <파란>(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을 꼽기도 한다. 본격적인 대두는 1930년대의 동경유학생인 김환기, 유영국, 이중섭, 문학수 등이 관전을 외면하고 전위적인 그룹 '자유미술가협회', '미술문화협회', '백만회' 등을 통해 모더니즘 작품을 발표한 때부터이다.



주경 <파란>, 1923

해방 이후 혼란기를 지나 6.25 한국전쟁의 시련을 겪은 후 1950년대 말 본격적인 추상미술운동이 일어났다. 새로운 소재, 기법의 개척, 대담한 미학모색, 국전의 낡은 가치관에 반항하며 열기를 더해갔다.

1957년 본격적인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던아트협회', '현대미술가협회', '신조형파전', '창작미술가협회' 등이 창립되고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이 시작되었다.

### 공모전에서 추상미술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타려면 인물좌상을 그려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전에서는 아카데미한 사실그림이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냉대 속에서 추상미술 최초의 최고상인 대통령상 영광은 1965년 14회 국전에서 조각 박종배 <역사의 원>이 수상했다. 그 후 1969년 18회 서양화 박길웅 <흔적 백 F-75>와 1972년 21회 서양화 표승현 <적> 등 세 차례 있었다.

국전에서 구상과 비구상의 분리를 주장해 오던 것이 1974년 이루어졌다. 그동안 재야작가로 있던 동양화가 송영방, 전영화, 정탁영, 서양화가 박서보, 정영렬, 조용익, 하인두, 윤형근, 전성우, 하중현, 조각가 이종각 등이 국전에 비구상 추천작가로 대거 영입되었다. 1975년에도 서양화가 김종학, 운명로, 정점식 등이 있었다.

가을에 개최해 온 국전을 봄, 가을로 분리, 봄 국전은 2부: 비구상(동양화, 서양화, 조각), 4부(공예, 건축, 사진)로 가을 국전은 1부: 구상(동양화, 서양화, 조각), 3부(서예, 사군자)로 나누어 공모했다. 이후 1974년 23회 서양화 유희영 <부활>, 1975년

24회 서양화 강정완 <회고>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1977년 26회부터 봄 국전에 서예, 공예, 건축, 사진, 가을 국전에 동양화, 서양화, 조각을 1부: 구상, 2부: 비구상으로 나누어



1974년 국전 대통령상 서양화 2부, 유희영 <부활>

실시했다. 1977년 26회 서양화 이반 <팽창력-겨울>, 1978년 27회 동양화 황창배 <비 51>, 1979년 28회 조각 한창조 <역사의 문>이 각각 대통령상 영예를 차지했다.

또 다시 제도의 변경으로 80년 29회부터 대통령 시상제는 폐지되고 부문별 대상으로 동양화 이석구 <잔영>, 서양화 김진석 <그림자 802>, 조각 이상갑 <간 80>, 1981년 30회는 동양화 오숙환 <휴식>, 서양화 박재호 <사변의 시>, 조각 전국광 <매스의 비> 수상을 끝으로 국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언론기관 주최의 민전에서는 수상작품이 최고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일보사의 한국미술대상전에 1970년 1회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가 대상을 수상했고 1978년 5회 지명공모 대상 윤형근, 일반공모 대상 진옥선, 1980년 7회 지명공모 대상 하중현, 일반공모 대상 이동엽이 각각 수상했다. 중앙일보사의 중앙미술대전 조각부문에서 1978년 1회 강대철, 1979년 2회 백철수 수상작품이 연이어 수상했다. 한편, 동아일보사의 동아미술제는 새로운 형상성을 내걸었기 때문에 추상미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 1950-80년대 추상미술 단체의 흐름

구상이 국전을 주 무대로 맥을 이어 왔다면 추상미술은 화단의 보수성을 배격하고 단체 활동, 국제전 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0-80년대 추상미술의 흐름을 그 당시 활동했던 미술단체와 기획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957년 창립된 '모던아트협회'는 아카데미즘에 반발한 새로운 의식을 내세우며 일본에서 유학했던 박고석, 유영국, 이규상, 한묵, 황염수가 창립하여 회원변동이 있으면서 1960년까지 6회전으로 해체되었다. '현대미술가협회'는 반국전을 내걸고 결성, 김창열, 장성순, 하인두 등 8명이 창립하여 2회부터 박서보 등이 참가했는데 60년까지 1년에 1-2번씩, 6회전을 가졌다. 1961년 '60년미협'과 《연립전》을 가진 후 '악튀엘'로 재출발하였다.

'현대작가초대전'은 조선일보사 주최로 1957년 서양화가 20명을 시작으로 동양화가 조각가, 판화가로 확대되었다. 1961-63년은 공모전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1964, 1965, 1967년은 열리지 않았고, 1969년 13회로 막을 내렸는데 우리미술계에 큰 공헌을 남겼다.

1960년 들어 '60년미술가협회'는 김봉태, 김종학, 박재곤, 윤명로, 이주영, 최관도 등 대학을 갓 나온 신예작가들이 덕수궁 담벼락에 전시회를 열었는데 2회전 후 1961년 '현대미협'과 《연립전》 후 해체되었다.

'벽동인전'은 서울대 출신의 김익수, 김형대, 박병욱, 박홍도, 유병수, 유황, 이동진, 이정수 등이 창립했다. 여기에 동양화의 전통적 형식과 가치관에 도전하여 서울대 출신들이 '목림회'를 만

들어 1964년 8회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악뛰엘'은 1961년 '현대미술가협회'와 '60년미술가협회'가 《연립전》을 가진 후 해체되며 만들어져 미술계에 표현주의적 추상운동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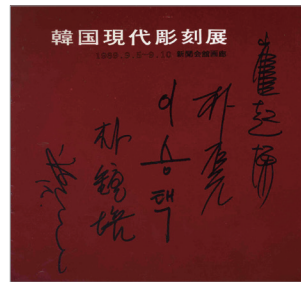
《문화자유초대전》은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가 주최하여 1966년까지 5회 동안 화단중심에 있던 작가를 초대하였다.

1963년 '원형회'는 새로운 조형행동의 전위조각을 표방하며 1963년, 1964년 전시회 이후 1966년 덕수궁 야외전을 끝으로 아쉽게 해체되었다.

'오리진회화전'은 홍대 출신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며, 부산에서는 '혁동인전'이 출범하였다.

1964년 광주에서 '현대작가 에보끄전'이 창립되었으며 1966-68년 《한국현대회화전》이 중앙일보사 주최로 《한국현대미술초대작가전》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1967년 '무동인', '오리진', '신전' 동인이 참가한 《한국청년작가연립전》이 중앙공보관에서 있었고, 조각단체로 1968년 서울대 출신 '현대공간회', 1969년 홍익대 출신 '한국현대조각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1969년 《1회 한국현대조각회전》

1970년대는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로 시작되었다. A.G는 '전위예술에의 강한 의식을 전제로 비전 빈곤의 한국화단에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 창조하여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념을 내걸고 박환, 김구림, 김차선,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승원, 이승조, 최명영, 하중현과 평론가 이일, 오광수가 창립했는데 학회지도 1969년부터 1971년까지 4호를 발간했다. A.G는 1970년 《확장과 환원의 역학》, 1971년 《현실과 실현》, 1972년 《탈관념의 세계》 등 3번의 주제전을 갖고 1974년 《1회 서울비엔날레》주최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1970년 서울대 출신들이 '신체제'를 창립하여 추상표현주의 극복을 내세우며 1년에 2번 전시회를 가졌고, 1976년 11회로 해체되었다.

1971년 'S.T'전은 Space와 Time의 약자로 전시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가 1980년 7회까지 이어졌다.

1972년 《양테광당전》은 가장 젊은 실험작가들이 집결되었는데, 각종 국제전 출품작가 후보지명 형식으로 출발했다. 같은 해 홍익대 출신 동양화가 5명이 시간성과 공간성 극복을 내세우며 '시공전'이 창립되었고 대구에서 '신조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 명동화랑에서 유근준, 유준상, 이일이 선정한 《한국현대미술 1957-72전》을 열었는데

1부: 추상=상황, 2부: 조형과 반조형을 주제로 하였다. 또 서울대 출신 박재호, 오경환, 유희영, 이동진, 이정수, 조용각 등이 '제3그룹전'이 창립 1982년까지 12회전을 지속하였다. 1974년 서울대 출신 서양화가 조각가가 모여 개성과 경험을 존중하며 창조적 입장을 내세워 '서울 70'이 1977년까지 4회전을 가졌다. 동양화에서 재료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서러벌 성신여대 출신이 모여 《현대회화전》을 1974년, 1975년 가진 후, 1976년부터 《현대차원전》으로 계승되었다. 1975년 새로운 형태로 《에콜 드 서울》의 창립전은 박서보에 의해 초대작가를 선정했는데 2회부터 운영위원에서 초대작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매년 주요작가는 변함없이 몇몇 작가만이 바뀌는 형식으로 세력화되어 관훈갤러리에서 이어지며, 1995년에는 《에콜 드 서울 20년》, 《모노크롬 20년》이 열렸다.

197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미술협회가 공동주최한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이 열렸다. 시기별로 나누어 1부: 27명, 2부: 35명, 3부: 32명, 4부: 37명이 출품했고 계간미술에서 『한국의 추상미술-20년의 궤적』을 발행하였다.

1979년 미술회관에서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I: 비구상》을 열었다. 이 전시는 미술회관 신축개관 기념전시로 비구상 회화 44명, 조각 20명의 작품이 초대되었다.

1960-70년대 《파리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 《카뉴국제회화제》, 《인도트리엔날레》 등 국제전에 참여 빈도표를 보면 박서보 10회, 김창열, 심문섭, 이우환, 하중현 7회, 서승원, 윤명로, 정영렬, 조용익 6회, 서세옥, 정창섭, 최만린, 최명영, 윤형근 5회로 추상작가 14명이 독점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작가	출품	출품 내역
박서보	10회	파리 (63, 65커미), 상파울루 (65, 75), 카뉴 (69, 74커미, 77), 국제청년 (69), 국제현대 (69, 78)
김창열	7회	파리 (61, 63커미), 상파울루 (65, 73, 77), 카뉴 (72), 인도 (74)
심문섭		파리 (71, 73, 75), 인도 (74), 상파울루 (75), 카뉴 (79), 국제현대 (78)
이우환		상파울루 (69, 73), 국제청년 (69), 파리 (71), 인도 (74), 카뉴(76), 국제현대 (78)
하중현		파리 (65, 71), 상파울루 (67, 77), 카뉴 (74), 인도 (74), 국제현대 (78)
서승원		파리 (69), 국제청년 (69), 상파울루 (71), 카뉴 (76, 77커미), 인도 (78)
윤명로	6회	파리 (63, 69), 상파울루 (67), 국제청년 (69), 카뉴 (71, 79)
정영렬		파리 (65), 상파울루 (67), 카뉴 (70, 75커미, 77), 인도 (74)
조용익		파리 (61, 67커미, 69커미), 상파울루 (67), 카뉴 (69), 인도 (74)
서세옥	5회	상파울루 (63), 카뉴 (69), 국제현대 (69), 인도 (71커미, 78커미)
정창섭		파리 (61), 상파울루 (65), 카뉴 (69), 국제현대 (69), 인도 (74)
최만린		파리 (65, 67, 71커미), 상파울루 (69), 인도 (74)
최명영		파리 (67), 상파울루 (69), 카뉴 (71, 76커미), 인도 (74)
윤형근		상파울루 (69, 75), 카뉴 (76), 인도 (78), 국제현대 (78)

(표) 1960-70년대 국제전 참가 다수 작가 14인

1) 「잘고 국제전 진출 개최 30여년 그 실상과 허상」, 『미술평단』 가을호, 1993

1980년대 들어 추상미술 단체의 창립은 뜸해졌는데 1980년 '프로세스'는 김창진, 이주영, 최상철, 하동철 등 4명이 창립했었고, 서울대 출신 중견들이 모여 《오늘의 작가전》을 시작, 1989년 10주년으로 중단하였다.

1984년 워커히미술관 개관전으로 《60년대의 한국현대미술-앵포르멜과 그 주변》 전시회를 열었다. 이경성 관장이 기획하여 김구림, 김영주, 박서보, 박석원, 이수재, 최옥경, 하종현 등 작품 58점이 출품되었다. 1960년대의 대작들을 보여준 획기적인 전시였다. 두손갤러리에서 열린 《1960년대의 현대미술전-파리비엔날레 출품작을 중심으로》는 2-4회 《파리비엔날레》 출품작을 보여 주었다.

1987년 한국미술평론가 기획으로 이일이 선정한 《30/40대 기하학이 있는 추상전》이 미술회관에서 열렸다.

1988년 2월에 워커히미술관에서 이경성, 이세득, 이일이 선정한 《현대회화'70년대의 흐름전》에는 곽인식, 권영우, 이우환, 이성자, 최명영 등 28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9월에 무역센터 현대미술관에서 개관기념전으로 서성록이 기획한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1970-1979전》은 김용익, 박현기, 이강소, 이건용, 진옥선 등이 포함된 20명의 작품은 1970년대 《에콜 드 서울》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1989년 서양화 중견작가들이 학연을 떠나 'ABSTRACT 89전'을 창립하였고 김형주, 박항률, 오수환, 우제길, 이영희, 이주영 등이 참여했다.

1980년대 들어 민중미술의 큰 흐름 속에 추상미술은 1960-70년대 위세에 비해 많이 주춤하였으나 다양한 현대미술 사조에 기인되었다.

### 신조형파선언

현대란 무엇이나? 창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은 어떠한 것이나? 이 체제는 우리들의 과제다. 우리들은 어제의 발견에 오늘의 장물이 된다면 내일 또 하나의 진실을 창조할 것을 생각한다. 벽찬 고도의 탐색우에 서서 새로운 진실을 송가하며 조형예술을 지향하는 우리들은 자연을 측량한다. 그러나 소위 자연주의자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책임성 있게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사실주의자일 수는 없다. 언제나 "새로움"이란 진실하고 영원한 우주에서 발견 창조되었다. 우리들은 창조의 철칙을 고수하여 오로지 현대미술의 창조 탐구에 투철할 것을 서로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이념을 선언한다.

1. 우리들은 민족미술의 창조적 전통성을 계승한다.
2. 우리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창조 탐구에 전념한다.
3. 우리들은 현대미술의 생활화에 직접 행동한다.

1957년 6월 신조형파

## 벽동인회 발언

오늘 모든 안전과 환락으로 통하는 문은 우리들의 눈앞에서 차단되었다. 현실은 차디찬 벽이 되어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 있다. 어린 십대에 전쟁을 겪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도리켜 보아야 젊다는 이외에 이렇다할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일부의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무능과 탐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들은 미처 알 수 없었던 원인에 비해 모든 참혹한 결과를 맞보아야만 했다. 다만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궁지와 전야와 갈증에 여윈 우리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저항의 정신만을 조장해 주었을 뿐이다. 모든 질서의 도괴 그 뒤엔 더욱 새로운 시대를 위한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선인들은 그들의 무기할 은둔과 아세로서 탐욕과 실권장악의 수라장 위에 쌓아 올린 지위를 유지하기에 갈망하여 해방 후 십여년간 이 나라의 민족문화 예술을 전시대적인 천답의 상태에 버려두게 하였다.

몇몇 파벌의 싸움은 이념의 싸움보다 실권을 위시한 감정적 투쟁으로 시종하였다. 민족문화와 고유한 전통은 속속드리 파양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태동은 요원하다. 우리들은 새삼 이 자리에 서까지 전시대인의 과오를 규탄하고 그들에게 역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들의 입장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모든 것은 있었던 그대로 충분하다. 지금은 행동을 결행할 때다. 우리들은 행동하면 그 뿐이다.

원컨대 우리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그리고 창조 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벽동인전의 첫 전시회에서 우리들은 가능한 모든 불필요한 형식과 시설을 거세해 버렸다. 여기에 전시될 작품은 그대로 우리들의 동체요 사상이요 피요 그밖에 모든 것이다. 우리들은 벌거벗은 몸통이 그대로 차단된 벽 앞에 서 있다. 비록 화풍과 기교상의 사사로운 차질은 있을지언정 오로지 민족문화의 고양과 창달을 위하고 자아형잔의 보다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는 우리들의 의욕과 정열은 그 누구도 억제할 수 없으리라 믿으며 인사를 대신한다.

1960년 벽동인회

## 현대미술가협회 60년미술가협회연립전 선언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는 상태다. 「어제」와 「이제」 「너」와 「나」 「사물」다가 철철 녹아서 한 굶으로 흘러 고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산산이 분해된 「나」의 제 분신들은 여기 저기 다른 곳에서 다른 성분들과 부딪쳐서 뒹굴고 있는 것이다. 이 작위가 바로 「나」의 창조행위의 전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된 모양일 수가 없다. 이동의 과정으로서의 운동 자체일 따름이다. 파생되는 열과 빛일 따름이다. 이는 「나」에게 허용된 자유의 전체인 것이다. 이 오늘의 절대는 어느 내일 결정하여 핵을 이룰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답기만하다. 지금 우리는 지글지글

꿈고 있는 것이다.

김용선, 김봉태, 김창열, 권영숙, 나병재, 손찬성, 이명의, 김종학, 이양로, 김대우, 이용환, 유영열,  
장성순, 정영섭, 정상화, 최관도, 조용익, 박재곤, 하인두, 윤명로

1961년 10월(제선언 1959년 11월)

### 문화자유초대전은

혁신적인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양상과 호흡을 같이 하며, 창조적인 이념을 발판으로 한국 미술  
문화의 발전을 꾀하고,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주의에서 벗어나 전통과 영향의 상호작용  
을 평가하는 동시에, 조형예술의 자유로운 문화사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1962년 6월 21일 세계문화자유회의의 한국본부

### 제3선언

해진 존엄들 여기 도열한다. 그리하여 이 검은 공간속에 부동켜안고 흥소한다. 모두들 그렇게도  
현명한데 우리는 왜 이처럼 전신이 간지러운가, 살점 깎으며 명암을 치달아도 돌아오는 마당엔 언  
제나 빈손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광기다. 결코 새롭지도 희한하지도 않은 이 상태를 수확으로  
자위하는 까닭은 그것이 이른바 새로운 가치를 사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이다.

1962년 8월 18일 악튀엘

### 선언

우리는 새로운 조형행동에서 전위조각의 새 지층을 형성한다.

1. 일체의 타협적 형식을 부정하고 전위적 행동의 조형의식을 가진다.
2. 공간과 재질의 새질서를 추구하여 새로운 조형논리를 형성한다.

1963년 원형회조각전

### 선언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동시공존하며, 민족적 자주, 자존적 긍지를 갖고 진부한  
작가적 양심과 방황하는 정신적 풍토를 개선하며, 신시대를 증언하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조형  
언어로서 참신한 공간을 창조한다.

1968년 현대공간회

## A.G 1호

전위예술에의 강한 의식을 전제로 비전 빈곤의 한국화단에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 창조하여 한국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한다.

1969년 한국아방가르드협회

## 시공전 서문

자신의 전적인 재평가를 위해서는 과감한 거부가 요청된다. 오늘날 이른바 동양화가 처해있는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또 그것이 비단 동양화뿐이겠는가. 오늘의 예술 전체가 자기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오늘의 우리,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 위치한 오늘의 우리에게만은 우리만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역사의지로서 시간성과 조형의지로서 공간성을 추구하고 체득하며 그러므로써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1972년 시공전

## 취지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는 짧다. 줄잡아 20년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현대미술은 국제 미술사조의 추세에 뛰어 들어 거기에 본격적으로 발맞추기 시작한 것은 수 삼년 전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련과 진통의 어두운 막장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인도의 트리엔날레에서 그리고 특히 금년들어 프랑스의 까뉴에서 우리의 피나는 역정의 결실들을 세계적 이목 속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고, 바로 얼마 전 파리비엔날레에서 한국작품에 대한 갈채의 소리가 드높이 퍼지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세계속의 한국미술상을 우리들의 창조적 자세와 새로운 전통에의 자각으로 너와 나라는 인간관계의 울타리를 열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로매진해야 할 시급한 때를 맞은 것이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요청에 진실하게 대응하며 진실에 대한 투철한 자각으로 1972년 12월에 '서울현대미술제'를 발족시켰고 그 후 얼마간 제반 사정으로 출항을 멈춰 오다가, 오늘 한국 현대미술의 전진적 세력을 총망라하여 그 막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 미술제가 스스로에 부과한 과제는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고 앞으로 명료하게 제시될 것 이려니와 이 자리에서 거듭 다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미술제가 모든 창조적 현대미술인이 참여하는 공동의 광장이라는 사실이다.

1975년 12월 서울현대미술제

## 1990년대 이후 추상미술 전시회

1990년대 들어 추상미술을 내세워 새로운 단체의 창립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여 회고하는 기획전들이 이어졌다.

1991년 5월 한원갤러리는 한국 현대미술사의 새로운 정립을 표방한 《한국 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시리즈Ⅱ-환원과 확산의 시기전》을 김영순 관장이 기획하여, 1960-70년대 미술계를 되돌아보는 전시로 참여작가 30명의 작품 66여점과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전시하였다. 1993년 토탈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걱정과 도전의 세대전》은 큐레이터 정준모가 기획하여 김구림, 김봉태, 김종학, 김차섭, 김형대, 서승원, 윤명로, 이봉열, 이승조, 이태현, 최명영, 하종현, 한영섭 등 13명이 참가하였다. 동시대 주요 몇 작가가 빠졌지만 팸플릿에는 우리 현대미술을 되돌아보는 정준모의 글 「1960년대의 한국현대미술의 상황」과 유근준, 김인환, 오광수, 박영남, 서성록 5명의 발표 글을 재수록하여 출판작가 약력, 참고문헌, 석사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표가 잘 정리되어 있다.

오리온그룹 서남재단이 마포에 서남미술전시관에 이어 1994년 6월부터 여의도에 제2서남미술전시관을 개관하며 《한국의 추상미술: 1960년대의 단면전》으로 서양화 37명, 조각 26명의 작품을 4부로 나누어 두 달간씩 전시하였다.

1996년 2월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1970년대 한국의 모노크롬전》은 정창섭, 윤형근, 김창열, 박서보, 정상화, 하종현, 이우환, 김기린, 이승조, 서승원, 최명영, 이동엽(연대순) 12명으로 큐레이터 이화익은 “1970년대 모노크롬만을 대상으로 한 전시로 내세우며 한국의 모노크롬을 미술사 쪽으로 정리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996년 5월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전》은 호암미술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기획전의 일환으로 작고작가, 원로 및 중진작가 16명의 70여점을 전시하여 우리 추상 화가들의 작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단색회화의 이념과 정신전》은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허황 4인전으로 1975년 《한국 5인의 작가 다섯가지의 흰색전》에 출품하였던 허황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삼성미술관은 새 천년의 첫 전시로 《한국과 서구의 전후추상미술: 걱정과 표현전》을 개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유럽 앵포르멜,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과 한국의 6.25 전쟁 이후 앵포르멜 경향의 추상미술을 한 자리에 전시하여 우리의 현대미술을 세계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26명의 1950-60년대 회화 조각 작품과 카렐 아펠, 윌럼 드 쿠닝, 장 뒤뷔페, 장 포트리에, 샘 프랜시스, 잭슨 폴락, 마크 로스코, 자오우지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이 도록에는 김영나 서울대 교수의 「전후 추상과 우리나라의 앵포르멜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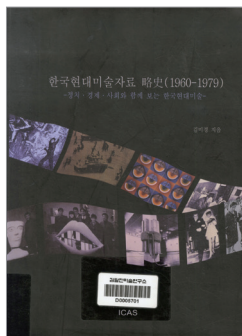
술」 글과 8명이 참석한 「한국 앵포르멜 미술의 형성과 전개」 좌담회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000년 6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중반전》은 우리 현대 역사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 속에서 현대미술의 중심과 주변으로 다각도로 살펴보는 취지로 유화 133점, 조소 42점, 수묵채색화 34점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과 그 흐름을 논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1965-1975: 전환과 역동의 시대》 전시는 고난과 희망의 엇갈렸던 시대를 미술사적으로 되돌아 본 전시였다. 주변 사정이 열악했던 시대에도 미술가들은 응집하여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열기가 충만하였다. 전시를 '순수(Purity)', '실험(Experiment)', '개념(Concept)'으로 구분하여 기하학적 추상, 실험미술, 자료사진 등이 다량 출품되었다. 그러나 해프닝과 설치작품은 자료가 산실되어 재제작 또는 재현으로 꾸며졌다.

2001년 9월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1970-90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선두적 역할을 한 김환기, 김중영, 유영국, 윤형근, 서세옥, 김창열, 박서보, 정상화, 이우환 9명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2002년 11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사유와 감성의 시대전》은 모노크롬(단색화)이 풍미했던 시대의 특징을 그리기의 반복과 평면의 지각, 지지체와 일루전의 일체화, 패턴의 전개와 표면의 물성화, 질료의 무화와 평면의 회복, 침윤의 방법과 공간의 자각 등 5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김미경, 『한국현대미술자료 역사(1960-1979)』, ICAS, 2003

2005년 5월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열린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전》은 김경, 김구림, 김서봉, 김창열, 김환기, 류경채, 윤명로, 이봉열, 이세득, 이응노, 장성순, 전혁림, 정상화, 조용익 등 14명이 전시되었는데 2004년 MIA미술관에서 열렸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추상전》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며 다시 열린 전시이다. 한국 초기 추상미술의 역사적 가치의 비평적 재조명을 기획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전시기획자 오상길은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Ⅳ」, 학술 세미나 「초기 추상미술의 비평적 재조명」 연찬선상에서 기획이라고 밝혔으며 비평을 체계화하고 엄격한 미술사적 검증을 거치는 끈질긴 작업을 강조했다. 작가와의 대담, 김찬동, 오상길, 김미경의 세미나, 수집자료 목록 등이 풍부하게 수록되었다.

2007년 11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에서 열린 《추상미술, 그 경계에서의 유희》는 '원시

적 그림: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김환기, 권옥연, 류경채, 문학진, 남관, 손동진, 전혁림), '지적 감수성: 시각적 유희로의 여행'(이준, 한묵, 하인두, 하종현, 유희영, 서승원, 김봉태, 최명영), '물질적 영감: 정신적 유희로의 전환'(박서보, 윤명로, 윤형근,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으로 구분하여 꾸민 전시이다.

2008년 7월 서울시립미술관의 《한국 추상회화 1918-2008전》은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현대미술 반세기의 과거와 현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취지로 44명의 작품 80여점을 전시하였다. '공간과 물성'(고충환), '행위와 유희'(김영호), '반복과 구조'(조은정), '색면과 빛'(서성록) 등 4개의 섹션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궤적을 되짚어 보고 4명의(괄호속) 필진들이 참여하였다.

201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추상미술 10인의 지평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회화 작곡가 10명을 '인간을 보다'(남관, 김영주, 하인두), '자연을 그리다'(김환기, 유영국, 이성자, 류경채), '물(物)의 언어를 듣다'(곽인식, 정창섭, 윤형근)으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

2012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에 다른 시각과 해석을 부여하기 위해 외부 기획자를 초빙하는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평론가 윤진섭이 초빙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명칭에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식적으로 '단색화(Dansaekhwa)'를 사용하고 곽인식, 권영우, 김기린, 김장섭, 김환기, 박서보, 서승원, 윤명로, 윤형근, 이동엽,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최명영, 최병소, 하종현, 허황 등 17명과 2세대 작가인 고산금, 김춘수, 김태호, 김택상, 남춘모, 노상균, 문범, 박기원, 안정숙, 이강소, 이배, 이인현, 장승택, 천광엽 등 14명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전북도립미술관으로 전시가 이어졌다.

2014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단색화의 예술전》은 초빙 큐레이터로 윤진섭이 참여하였고 김기린,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등 7명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2015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KOREAN ABSTRACT PAINTING》은 갤러리현대 개관 45주년을 기념으로 한국 추상회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로 정창섭, 정상화, 하종현, 한묵, 김기린, 김창열, 김환기, 권영우, 이우환, 남관, 박서보, 곽인식, 이성자, 류경채, 서세옥, 유영국, 윤형근(알파벳순) 18명을 전시했고 도록도 영문판으로 발간했다. 그동안 갤러리현대와 한국추상미술의 역사, 주요 추상작가 전시 카탈로그 표지도 함께 수록했다.

#### 참고문헌

- 김달진, 『한국의 추상미술 35년 1957-1991 연표·선언문』, 『현대미술』 겨울호, 1991.
- , 「국제전 진출·개최 30여년 그 실상과 허상」, 『미술평단』 가을호, 1993.
- , 「한국의 추상미술 35년 1957-1991」,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발언, 1996.
- , 「단색화 연표 1970-2015」, 『단색화의 미학을 말한다』, 마로니에북스, 2015.